

5세기 후반 삼국의 전투와 대치선

강민식*

1. 머리말
2. 고구려의 신라 공략과 母山城 전투
3. 494년 살수지원 전투와 대치선의 변화
4. 맺음말

1. 머리말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백제 한성 공략은 이전의 전투와는 다른 차원이었다. 영락 6년(396) 광개토왕이 백제를 공격하여 아신왕의 항복을 받고 포로를 이끌고 귀환했던 것¹⁾에 반해 475년 공략은 한성을 함락하고 개로왕을 폐사시켰으며, 결국 문주왕은 웅진으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그나마 더 이상의 손실 없이 전황을 마무리한 배경 중의 하나는 신라 구원군 1만이었을 것이다. 당시 신라의 구원은 433년 화호 체결 이후 지속되어 온 濟羅同盟의 실현이었다.²⁾ 이보다 앞서 455년 신라는 고구려의

* 충북대학교 강사

1) <광개토왕릉비>, 以(永樂)六年丙申 기사 참조.

2) 제라동맹에 관한 정리는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다. 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

공격을 받은 백제를 구원한 적이 있어³⁾ 양국의 본격적인 군사협력 단계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성 함락 이후에도 백제와 신라 양국은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고구려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였다. 양국의 군사협력 관계는 대체로 5세기 말까지⁴⁾ 지속되어 성공적으로 고구려의 침입을 저지하였다. 실제 양국의 우호관계가 실질적인 군사동맹 관계로 발전한 것은 백제 동성왕(479~500)과 신라 소지마립간(479~499) 때라 할 수 있다.⁵⁾ 이러한 동맹관계에 따라 백제와 신라 양국은 고구려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한성 함락 이후 5세기 후반 고구려의 공격은 모두 7차례로 그 중 495년 백제 雉壤城을 공격한 것을 제외하면 6회 모두 신라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 5세기 말 삼국 간의 전투는 고구려와 신라가 주 교전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에 백제군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 백제가 세 차례에

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1981; 金秉柱, 「羅濟同盟에 관한 研究」, 『韓國史研究』 46, 한국사연구회, 1984; 양기석, 「5~6世紀 前半 新羅와 百濟의 關係」, 『新羅의 對外關係史 研究』(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紀念論文集15),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1994; 鄭雲龍, 「5~6世紀 新羅·高句麗 關係의 推移-遺蹟·遺物の 解釋과 關聯하여-」, 『新羅의 對外關係史 研究』(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紀念論文集15),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1994; 鄭載潤, 「熊津時代 百濟와 新羅의 關係에 대한 考察-羅濟同盟에 대한 비판적 검토-」, 『湖西考古學』 4·5, 호서고고학회, 2001. 제라동맹 명칭 개념은 동맹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목한 견해(梁起錫, 「5세기 百濟와 高句麗·新羅의 關係」, 『百濟論叢』 9, 백제문화개발연구원, 2009, 주 7)에 따라 기존의 나제동맹을 대신하였다.

- 3)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訥祗麻立干 39년(455), 冬十月 高句麗侵百濟 王遣兵救之.
- 4) 제라동맹이 433년부터 554년까지 유지되었다는 기존의 이해와 달리 6세기 들어 새로운 변화를 주목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梁起錫, 「5~6世紀 前半 新羅와 百濟의 關係」, 『新羅의 對外關係史 研究』(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15),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1994, 85~89쪽), 최근 구체적으로 496년 제라동맹의 와해와 고구려·신라의 재결합(朴眞淑, 「百濟 東城王代 對外政策의 變化」, 『百濟研究』 32,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2000, 98~102쪽), 혹은 497년 우산성 전투 이후 고구려·신라 양국 간의 和約이 맺어졌다고 이해하려는 연구(박성현, 「6세기 초 고구려·신라의 화약과 정계-「중원 고구려비」와 양국 경계의 재검토-」 『역사와 현실』 76, 한국역사연구회, 2010, 214~221쪽)가 있다. 박진숙과 박성현의 견해는 모두 우산성 전투에 백제가 구원군을 보내지 않은 것을 주목한 결과라 생각한다. 한편 501년 백제의 炭峴 設柵이 양국 갈등을 보여준다는 견해가 있다(鄭雲龍, 「羅濟同盟期 新羅와 百濟 關係」, 『白山學報』 46, 백산학회, 1996, 90~104쪽; 「熊津時代 百濟와 新羅」, 『百濟文化』 37,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2007, 31쪽).
- 5) 梁起錫, 「5~6世紀 前半 新羅와 百濟의 關係」, 『新羅의 對外關係史 研究』(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15),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1994, 82쪽.

결쳐 신라를 적극 구원한 반면, 신라의 백제 구원은 치양성 전투 1회에 불과하여 5세기 후반 백제와 신라 양국의 동맹이 과연 호혜적인 관계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5세기 후반의 주요 전투지역을 살펴보면 고구려의 공세와 이를 막기 위한 백제·신라 양국의 동맹관계 유지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5세기 말 삼국 전투의 교전지역으로 상당부분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 지명은 484년 전투기사의 毋山城이다. 모산성은 지금의 진천 대모산성으로 보고 있는데⁶⁾, 이러한 지명 비정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든다. 먼저 이 시기 신라 영역의 경계에 대한 점이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484년 고구려군은 신라 北邊의 모산성을 공격했다고 한다.⁷⁾ 그렇다면 적어도 모산성은 신라가 영유하던 곳이라는 전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신라가 삼년산성(470)과 일모성(474) 축성 후, 청주를 거쳐 진천지역까지 진출한 정황도 입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천지역에서 5세기 후반대의 신라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한계라 할 수 있다.

한편 494년 신라와 고구려가 薩水之原에서 전투를 벌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84년 모산성 전투에서 신라가 고구려군의 공격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남쪽으로 비정되고 있는 살수지원에서 양국의 전투가 전개된 것이라면 고구려군의 지속적인 공세에 따라 신라군이 후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484년 모산성의 위치 비정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494년 살수지원 전투의 위치도 새로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살수지원 전투는 5세기 후반 백제의 구원이 마지막으로 전개된 사례로서 향후 백제와 신라, 양국 동맹관계의 변화에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5세기 말 삼국의 대치선이

6)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上, 을유문화사, 59쪽; 閔德植, 1980. 「鎭川 大毋山城의 分析的 研究」 『韓國史研究』 29, 한국사연구회, 45~46쪽.

7)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6년(484) 秋七月.

어떻게 변화하고 결국 신라는 궁극적으로 어떤 실리를 취하고, 향후 전개될 삼국관계에서 우위를 결정짓는 주요한 배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484년 모산성 전투 전후의 정황을 통해 모산성을 새로이 비정하고, 494년 살수지원 전투가 벌어진 위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각국이 주력했던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백제와 신라 양국의 군사협력관계가 어떠한 결과를 낳았고, 6세기 들어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 배경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구려의 신라 공략과 母山城 전투

고구려가 400년 광개토왕 남정에 이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자(427), 백제와 신라는 동맹을 체결하여(433·434) 고구려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그 첫 번째 결실이 455년 신라가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은 백제를 구원한 것이다. 이보다 앞선 450년 신라군이 悉直에서 고구려 변장을 살해하면서⁸⁾, 신라는 그동안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 점차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였다.⁹⁾ 이후 신라는 454년과 468년 고구려의 거듭된 공격을 받게 되면서¹⁰⁾, 백제와 신라 양국은 자연스럽게 동맹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의 동맹이 실현된 사례가 455년의 군사지원과 475년 한성 함락 당시의 신라 구원군을 들 수 있다.¹¹⁾

475년 한성 함락 이전까지 고구려군은 백제와 신라 양국에 대해 군사적

8)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34년(450) 秋七月.

9) 『日本書紀』 권14 雄略 8年 2月 기사를 464년의 일로 비정할 경우, 450년 고구려 장수 살해와 464년 신라 영토 내의 고구려군 척결은 이러한 신라의 독자 노선 추구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10)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38년(454) 八月; 慈悲麻立干 11년(468) 春.

11)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자비마립간 17년(474) 秋七月; 같은 책, 권26 백제본기4, 文周王 1년(475).

공세를 반복하다가 한성 함락 후 신라 공세에 주력하였다. 481년 고구려군의 신라에 대한 공세는 475년 한성 공략과 같이 신라 수도 경주를 위협한 일대 사건이었다. 고구려군의 파상 공세에 맞서 백제·신라 연합군은 고구려군의 남하를 공동으로 저지하고 있다.

- 3년(481) 3월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변을 쳐들어와 狐鳴城 등 일곱 곳을 빼앗고 또 彌秩夫에 진군하였다. 우리 군사가 백제·가야의 원병과 함께 여러 길로 나누어 막았다. 적이 패하여 물러가니 뒤쫓아 泥河 서쪽에서 공격하여 천여 명을 목베었다.¹²⁾

481년 고구려군이 신라 영토 깊숙이 공격을 가하자 백제·가야군까지 연합하여 물리쳤다. 그런데 481년 고구려의 신라 공격은 475년 백제를 공격했던 것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백제 개로왕의 469년 고구려 공격과 북위 청병외교가 475년의 공격을 유발했다면, 신라가 고구려에 대해 군사적인 도발과 455년과 475년 백제에 구원군을 파견한 사실이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481년 고구려의 신라 공격은 475년과 달리 길어진 공격선의 한계와 신라의 저항¹³⁾, 그리고 백제와 가야의 구원으로 경주 공략은 결국 실패하였다. 그렇다면 481년 고구려는 신라 공략 실패에 따라 신라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신라는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점차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후 고구려와 신라는 알려진 바와 같이 소백산맥을 경계로 하여 대치하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¹⁴⁾

한편 고구려군의 신라 침공 루트는 동해안 방면도 고려할 수 있지만,

12)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炤知麻立干 3년 3월.

13) 이것은 400년 광개토왕의 남정이 신라의 요청(399)과 지원, 그리고 고구려 幢主 주둔지를 매개로 파죽지세로 진행되었던 사실(鄭雲龍, 「熊津時代 百濟와 新羅」, 『百濟文化』37,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27쪽)과 비교할 수 있다.

14) 강종훈, 「5세기 후반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선」,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2008, 117쪽; 장창은, 「4~5世紀 高句麗의 南下와 三國의 領域向方-『三國史記』地理志 ‘高句麗故地’의 實際(I)-」, 『한국학논총』 34, 2010, 44쪽.

대체로 狐鳴城을 경유한 내륙교통로인 죽령로를 통해 청송-영해 방면으로 남하한 것으로 생각한다.¹⁵⁾ 그렇다면 이때 고구려군은 충주를 경유하여 남하한 것이 아닐까 한다. 백제와 가야군이 신라를 도와 ‘分道禦之’한 것은 실제 신라 영역 깊숙이 군사활동을 전개한 것은 아닐 것이며, 구원로는 백제·가야군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여야 할 것이다. 이 점은 고구려의 충주 점유와 관련된 문제로,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연대를 통해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연대를 449년, 혹은 481년으로 보는 데¹⁶⁾, 449년설의 경우 『日本書紀』의 雄略 8년(464) 고구려군의 신라 영토 내 주둔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¹⁷⁾ 또 481년의 경우에도 그 근거로 제시된 辛酉年 간지를 2000년 고구려연구회의 판독회에서 발견하지 못해 입론의 한계가 있다.¹⁸⁾ 반면 이 비의 건립연대를 문자명왕대로 보고¹⁹⁾, 비의 성격은 정계비라 한 견해도 있다.²⁰⁾ 그런데 고구려가 새삼

-
- 15) 鄭雲龍, 「5~6世紀 新羅-高句麗 關係의 推移-遺蹟-遺物の 解釋과 關聯하여-」, 『新羅의 對外關係史 研究』(신라문화학회출판표지논문집15),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53~55쪽. 반면 호명성 등 7성의 위치를 충주나 청주 부근으로 보기도 하지만(임기환, 『웅진시기 백제와 고구려 대외관계 기사의 재검토』, 『百濟文化』37,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2007, 9쪽), 경북 청송군 등 경북 북부지역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李丙燾, 『國譯 三國史記』上, 을유문화사, 1983, 59쪽). 이병도는 청송군 虎鳴山으로 비정하였으나 지금 찾아볼 수 없고, 안동 진보면의 虎鳴川(『여지도서』 경상도 진보 산천, 新漢川 註: <대동여지도>)이나 예천군의 虎鳴院(『신증동국여지승람』 권24 예천군 驛院)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16)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연대 등에 대한 연구동향은 張彰恩, 「中原高句麗碑의 연구동향과 주요 쟁점」, 『歷史學報』189, 역사학회, 2006을 참고할 수 있다. 장창은은 고구려비의 내용연대는 449년, 건립연대는 450년으로 보고 있다.
- 17) 鄭載潤, 「熊津時代 百濟와 新羅의 關係에 대한 考察-羅濟同盟에 대한 비판적 검토-」, 『湖西考古學』 3-4, 호서고고학회, 68쪽.
- 18) 張彰恩, 「中原高句麗碑의 연구동향과 주요 쟁점」, 『歷史學報』189, 역사학회, 2006, 307쪽.
- 19) 李丙燾, 「中原高句麗碑에 대하여」, 『史學志』13, 단국대사학회, 1979; 최장열, 「중원고구려비, 선돌에서 한반도 유일의 고구려비로」,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2004; 박성현, 「6세기 초 고구려-신라의 화약과 경계-「중원 고구려비」와 양국 경계의 재검토-」, 『역사와 현실』76, 한국역사연구회, 2010, 216~217쪽. 박성현은 구체적으로 고구려가 우산성(충주)을 차지한 497년 이후, 또 北魏의 사행기록(504) 이후로 『三正綜覽』에 따라 12월 23일이 갑인일인 507년에 충주고구려비가 건립되었다고 하였다(220쪽).
- 20) 박성현, 「6세기 초 고구려-신라의 화약과 경계-「중원 고구려비」와 양국 경계의 재검토-」,

‘如兄如弟 上下相和’의 우호관계를 강조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 변장 살해(450) 후 신라의 독자노선 추구와 백제와 신라의 군사적 동맹에 따른 신라의 위상 변화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즉 위 문구는 신라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려는 고구려의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如兄如弟 上下相和’란 표현은 450년 고구려 변장 살해 사건으로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기 직전의 상황으로 보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표현은 여전히 ‘東夷寐錦’ 등 기존의 인식이 남아 있는 가운데, 이미 고구려와 신라의 갈등이 본격화된 상황을 되돌리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시기는 ‘十二月廿三日甲寅’을 480년(장수왕 68)으로 보아²¹⁾ 그 직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고구려는 신라에 대한 의복 사여를 통해 기존의 우월적 위치를 확인하고, 나아가 백제와 신라의 연합을 저지하려는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²²⁾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이듬해 3월 신라를 대대적으로 공격한 것은 소지마립간이 같은 해 2월 比列城(안변)²³⁾까지 행차하여 군사들을 위로하고 솜으로 만든 군복을 나누어주는 등²⁴⁾ 순수를 통해 영역 지배의 의지를 확고히 한 것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은 연이은 군사적 충돌로 격화된 신라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양국의 우호관계 내지는 영향력을 복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81년 고구려의 신라

『역사와 현실』76, 한국역사연구회, 2010, 219~220쪽.

21) 邊太燮, 「中原高句麗妃의 內容과 年代에 對한 檢討」, 『史學志』13, 단국대학교사학회, 1979, 49~50쪽.

22) 충주 고구려비에 보이는 의복 사여는 492년 문자명왕이 즉위하였을 당시 복위가 책봉과 함께 의복을 사여하는 것이나(『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문자명왕 원년, 492), 신라가 가야와 의복 분쟁(『日本書紀』 繼體 23년, 529)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형제관계의 상징이 아니라 복속의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한다.

23) 비열성은 고구려의 比列忽郡으로 556년(진흥왕 17) 比列州로 삼고 軍主를 둔 곳으로 지금의 안변이다. 『삼국사기』 지리 신라, 朔州 朔庭郡 本高句麗比列忽郡…; 지리 고구려, 牛首州 淺城郡 [一云 比列忽].

24)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3년(481) 春二月.

공격은 이러한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신라군이 퇴각하는 고구려군을 뒤쫓아 물리친 곳은 泥河 서쪽이다. 이 泥河는 496년 고구려가 우산성을 공격하였을 때 實竹이 나아가 泥河에서 깨뜨린 곳과 같은 장소로 보인다. 그렇다면 5세기 후반 고구려-신라 양국이 공방전을 벌인 주요 무대의 하나로 泥河 주변을 지목할 수 있겠다. 곧 泥河의 위치 비정은 적어도 5세기 후반 고구려, 신라 양국의 경계를 결정짓는 요소라 할 수 있다. 泥河 관련 기사는 125년(지마이사금 14)부터 『新唐書』 발해의 남쪽 경계까지 5차례 언급되고 있다. 모두 신라의 북변과 관련된 기록이다.

이 중 발해와 신라의 경계²⁵⁾ 그리고 125년 말갈 침입 기사를 제외하면 모두 고구려의 신라 침입과 관련된다.²⁶⁾ 468년 泥河 축성은 하슬라주 백성을 동원하였다는 기사를 통해 강릉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溟州(강릉) 소속 군현이 지금의 영월, 정선 일대를 포함하고 있는 점과 481년 5세기 후반에 집중된 고구려의 신라 공격이 주로 北邊에 집중된 점, 고구려의 신라 공격이 내륙교통로를 통해 이루어져 그 퇴각로를 고려할 때 지금의 남한강 상류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²⁷⁾

25) 『新唐書』 권219 열전144 北狄, 渤海 …南比新羅 以泥河爲境….

26)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祇摩尼師今 14년(125) 秋七月 又襲大嶺柵過於泥河 王移書百濟請救 百濟遣五將軍助之 賊聞而退 ; 권3 신라본기3, 자비마립간 11년(468) 秋九月 徵何瑟羅人年十五已上 築城於泥河[泥河一名泥川] : 소지마립간 3년(481), 三月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 加耶援兵 分道禦之 賊敗退 追擊破之 泥河西 斬首千餘級 : 소지마립간 18년(496) 秋七月高句麗來攻 牛山城 將軍 實竹 上擊泥河 上破之.

27) 泥河의 위치 비정에 대한 논의는 張彰恩, 「新羅 慈悲~昭知王代 築城交戰地域의 검토와 그 의미-소백산맥 일대 신라고구려의 영역향방과 관련하여-」, 『新羅史學報』2, 신라사학회, 2004, 10~15쪽과 홍영호, 「『三國史記』所載 泥河의 위치 비정」, 『韓國史研究』150, 한국사연구회, 2010, 45~60쪽에 자세히 다. 크게 남한강 상류설·강릉 일대설·낙동강 상류설·소양강설로 나뉜다. 泥河를 남한강 상류역으로 본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津田左右吉, 「好太王征服地域考」, 『朝鮮歷史地理』1, 1913; 『滿鮮歷史地理研究1-朝鮮歷史地理-』, 岩波書店, 1964, 57~59쪽; 李康來, 「『三國史記』에 보이는 靺鞨의 軍事活動」, 『領土問題研究』2,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5, 48~53쪽;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52~53쪽 주 80; 홍영호, 「『三國史記』所載 泥河의 위치 비정」, 『韓國史研究』150, 한국사연구회, 2010, 69~73쪽. 그런데 구체적인 지명 비정이 불가능하다면 신라가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쪽의 하천 경계를 뜻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한다.

그렇다면 481년 전투를 통해 신라는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하였고, 소백산맥 밖에서 고구려군을 패퇴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주를 차지하고 있던 고구려가 다시 신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사건은 484년의 母山城 전투이다.

- 6년(484) 가을 7월 고구려가 북변을 침입하므로 우리 군사가 백제와 함께 母山城 아래에서 공격하여 크게 깨뜨렸다.²⁸⁾

위 기사는 484년 백제와 신라 연합군이 재차 고구려군을 패퇴시킨 전투로, 신라의 북변을 침입한 고구려군을 양국 군사가 모산성 아래에서 물리친 것이다. 모산성은 지금까지 충북 진천으로 비정한 이후 별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다. 모산성은 지리 연혁을 살펴보면 충북 진천²⁹⁾ 이외에도 경기 양주³⁰⁾, 서울 강남³¹⁾ 등지의 大母山城을 들 수 있다.³²⁾ 그 중 진천 대모산성이 유력한 것은 현존 유적명칭의 유사함과

28)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6년 추 7월.

2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5, 忠淸 鎭川縣, 古跡 …大母山城[在縣東六里 石築 周二千六百七十尺 內有一井今廢] :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鎭川 大母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진천군, 1996.

3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1, 京畿 楊州牧, 古跡 …大母山城[在州西五里 石築 周九百六尺 高五尺]… : 문화재연구소·한림대학교박물관, 『楊州大母山城 發掘報告書』, 1990 : 한림대학교박물관, 『양주 대모산성-동문지·서문지-』, 2002.

3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6, 京畿 廣州牧, 山川 …大母山[在州南三十里]… 漢陽大學校博物館, 2009. 『大母山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漢陽大學校博物館 叢書 第67輯), 32~41쪽. 대모산성은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및 서초구 내곡동 일원에 위치한 대모산 정상부를 감싼 테피식 석축 산성이다. 둘레는 약 569m이며, 대부분 붕괴되었으나 성벽 일부 구간에 8~9단의 석축이 남아 있어 성벽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보고자는 성벽의 구조를 편축식이라 하였고 현문식의 문터 4곳을 추정하였다.

32)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밖에도 평안도 義州牧에 大母城과 경기 江華都護府에도 大母城山이 있으나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모산성을 지명으로 본다면 金化邑(금화군 금성면)이 가장 가깝다. 삭주 益城郡은 고구려의 母城郡(『삼국사기』 권35 잡지4 지리2 신라, 朔州 益城郡 本高句麗母城郡 景德王改名 今金城郡)으로 모산성과 가장 비슷한 지명이다. 그렇지만 신라가 이미 소백산맥을 넘어 지금의 춘천 가까이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母城郡을 달리 母城郡(『신증동국여지승람』 金城縣, 建置沿革 本高句麗母城郡 [一云 也次忽] 新羅改益城郡 後改今名…)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선뜻 판단할 수 없다.

아무래도 신라의 북변과 가까운 정황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시 기록을 살펴보면 신라의 ‘북변’을 침입한 고구려를 백제와 함께 모산성에서 물리쳤다는 것이다. 고구려군이 북변을 통해 신라의 모산성을 공격한 것이다. 그렇다면 모산성은 신라의 북쪽 영역 안쪽이나 경계에 위치한 곳이어야 한다. 나아가 5세기 후반 고구려의 신라 공격 방향과 주요 지명을 살펴보면 일정한 경향이 엿볼 수 있다.³³⁾ 고구려군은 489년 戈峴·狐山城까지 북변을 통해 공격하였고, 494년 살수지원 전투를 제외하면 尼河 부근의 牛山城 전투도 북변을 공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5세기 후반 고구려군의 신라 공격은 주로 북변, 그것도 동해안 방면이거나 尼河 방면을 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이해처럼 모산성을 진천으로 비정할 경우 이 시기 신라가 미호천의 상류지역을 통해 진천지역까지 진출했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또한 신라 북변을 침입한 고구려군을 퇴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전투라 하더라도 보은, 혹은 청주 남쪽지역 주변까지 진출한 신라군이 청주를 거쳐 진천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한편 진천 대모산성 지표조사에서 고구려계 토기편이 발견되어³⁴⁾ 이곳으로 비정한 견해가 유력해지는 듯 싶다. 그러나 진천 대모산성에서 수습된 고구려계 토기는 고구려군의 군사활동 루트를 반증할 순 있어도 이 시기 신라가 산성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³⁵⁾

33) 5세기 후반 고구려의 신라 공격 방향과 주요 지명은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연대	방향	주요 지명	연대	방향	주요 지명
468	북변	悉直城	489	북변	戈峴, 狐山城
480	(말갈)북변		494	?	薩水之原, 犬牙城
481	북변	狐鳴城, 彌秩夫, 尼河	496	?	牛山城, 尼河
484	북변	母山城	497	?	牛山城

34)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鎮川 大母山城 地表調查報告書』, 진천군, 1996, 84쪽. 보고자는 내성 지역에서 수습한 흑도계 연질 마연토기편을 한강유역에서 발견되는 고구려계통의 토기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성밖 도로확장구간에 대한 구제발굴에서도 고구려토기가 수습되었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 『鎮川 松斗里遺蹟』, 2005).

35) 실제 대모산성 내에서 발견되는 유물상은 백제 초기에 축성되어 한동안 유지되다가 인화문 토기가 쓰이던 시기에 다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어 5세기 후반~6세기 중엽의 공백기를

따라서 모산성은 신라 영역 내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적어도 서쪽의 보은 일대가 아니라면 보다 동쪽의 소백산맥 이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산성의 비정을 최근 발굴조사된 문경의 고모산성을 주목하고자 한다. 물론 소백산맥 주변의 여러 다양한 루트를 생각할 수 있으나 5세기 후반, 모산성 전투와 가장 근접한 유적으로 고모산성을 비정할 수 있다.

고모산성은 충주·괴산에서 조령(계립령)·이화령을 거쳐 문경·상주·김천에 이르는 교통로를 공제할 수 있는 천험의 요새이다.³⁶⁾ 이곳 산성에 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처음 보이는데, 문경현 산천의 串岬遷의 세주에 免遷 북쪽 깎아지른 봉우리에 옛 석성이 있다고 하였다.³⁷⁾ 산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대동지지』에, 둘레 900尺으로 신라 때 방수 하던 곳이라 하였다.³⁸⁾ 산성은 둘레 1,300m로 네 곳의 문터와 곡성 2개소, 치성 1개소, 수구 2개소 등을 갖추었는데³⁹⁾, 현문식의 남문 구조와 보축성벽 등을 통해 신라 산성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모산성과 연결된 동쪽 오정산 기슭에는 신현리 고분군이 있다.⁴⁰⁾ 이 고분군은 인접한 상주지역과는 다른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고⁴¹⁾, 5세기 후반부터 조영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⁴²⁾ 이처럼 신현리

갖는다(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鎭川 大母山城 地表調査報告書』, 1996, 110~113쪽).

36) 지금도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포함하여 국도 3번·34번이 지나는 곳으로 문경·가은을 지난 낙동강 상류가 남류하며 이곳을 지나며 깊은 협곡을 이룬 곳에 고모산성이 있다. 고모산성의 남북으로는 계립령(조령)·이화령의 고개길을 지나 대원령산성(690m), 북쪽 상류 7km 지점에 마고성(360m), 그리고 고모산성을 지나 남동쪽 하류 2km 지점에 고부성(테피식, 585m)이 거의 일렬상에 자리한다(中原文化財研究院, 『開慶 姑母山城 地表調査報告書』, 문경시, 2004, 476~477쪽).

3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9 경상도 開慶縣, 山川 串岬遷. 고려 태조가 이곳에서 길을 잃었는데 토끼가 열어주어 免遷이라 불렀다고 하였다.

38) 『대동지지』 권9 경상도 문경 城池.

39) (재)中原文化財研究院, 『開慶 姑母山城1 南門·南東曲城 發掘調査』, 문경시, 2007.

40) (재)中原文化財研究院, 『開慶 姑母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문경시, 2004; 『開慶 新峴里 古墳群 I』, 2007; 『開慶 新峴里 古墳群 II 2006年度 發掘調査』, 2008.

41) 李成龍, 「嶺南北西部地域 5~6世紀 古墳의 展開樣相-開慶尙州地域을 中心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77~81쪽.

42) (재)中原文化財研究院, 『開慶 姑母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문경시, 2004, 490~491쪽;

고분군을 배경으로 한 고모산성 일원의 고고학적 현황은 484년 모산성 전투 장소로 유력하다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삼국사기』 지리의 상주 古寧郡 연혁을 살펴보자. 고령군은 본래 古寧加耶國인데 신라가 차지한 후 古冬攬郡[古陵縣]으로 삼았다고 한다.⁴³⁾ 고령군은 지금의 상주시 함창읍인데, 『삼국유사』의 5가야 중의 하나이다.⁴⁴⁾ 이곳을 5가야의 하나로 지목한 것은 신라 말 고려 초의 관념이라 하였으나⁴⁵⁾, 신현리 고분군의 유구·유물상에서 가야와의 관련성이 다수 드러나고 있어⁴⁶⁾ 『삼국사기』 지리 기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⁴⁷⁾ 고령군(함창읍)의 연혁과 신현리 고분군의 고고학적 현황은 가야와의 관련성, 인근 상주지역과는 시기적 차이나 외래적 요소를 고려하면 5세기 후반의 새로운 변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84년 모산성 전투 전후 신라의 북쪽 경계선은 소지마립간의 순행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481년(소지마립간 3) 比列城, 483년 一善界, 488년 一善郡, 500년 捺己郡 등 왕의 순행⁴⁸⁾은 확대된 영토 내에서 행해

『聞慶 新峴里 古墳群 I』, 2007, 139~140쪽.

43)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1, 尙州 古寧郡 本古寧加耶國 新羅取之 爲古冬攬郡[一云 古陵縣] 景德王改名 今咸寧郡 領縣三….

44) 『三國遺事』 권1 기이1 五伽耶… 阿羅[一作耶]伽耶[今咸安] 古寧伽耶[今咸寧] 大伽耶[今高靈] 星山伽耶[今京山 一云碧珍] 小伽耶[今固城] 又本朝史畧云 太祖天福五年庚子 改五伽耶名 一金官[爲金海府] 二古寧[爲加利縣] 三非火[今昌寧 恐高靈之訛] 餘二 阿羅 星山[同前星山 或作碧珍伽耶].

45) 정구복 등, 『譯註 三國史記』4-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86쪽. 그런데 古寧加耶國→古冬攬郡→古寧郡 지명변화는 ‘常例를 벗어난 것’으로, “本古寧加耶國 新羅取之”는 『삼국사기』 편찬 당시에 첨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였다(186~187쪽).

46) 李成龍, 「嶺南北西部地域 5~6世紀 古墳의 展開樣相-聞慶尙州地域을 中心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72~81쪽.

47) 나아가 481년 전투에 참전하였던 가야군의 정체도 고령가야국, 또는 문경지역 가야계 세력의 군사활동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한편 『삼국사기』 지리2 朔州 奈靈郡(영주시)이 본래 백제 奈己郡이었다는 기록도 참고해 볼 수 있다. 481년 전투는 고구려-백제분기에 실리지 않은 신라 전승이 유일한 사건으로, 고구려군을 물리친 연합군의 성격에 대한 실마리가 아닐까 한다.

48)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昭知麻立干 3년(481) 봄 2월, 5년(483) 여름 4월, 10년(488) 2월, 22년(500) 가을 9월. 비열성은 朔州 朔庭郡의 고구려 때 지명인 比列忽那과 같은 곳으로 보아 함경남도 安邊으로 비정한다(鄭求福 등, 『譯註 三國史記』3(주석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91쪽).

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모산성 전투 전후 신라의 서북변은 소백산맥 근처에서 유지되었으며,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북변은 500년 捺已郡(영주) 순행 이후 완전한 점유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484년 모산성 전투 이후 고구려군은 489년 다시 신라의 북변을 공략하였다. 그해 9월 고구려군이 북변으로 쳐들어와 戈峴에 이르렀고, 10월 狐山城을 함락하였다.⁴⁹⁾ 489년 고구려군은 484년 모산성 전투의 전황과 비슷하게 북변을 쳐들어와 戈峴과 狐山城 공략에 나섰다. 이때 과현과 호산성이 별도의 전투 장소라기보다는 북변 침입 이후 계속된 곳으로 볼 수 있다. 이 489년 전투 기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다른 비정이 없었다.⁵⁰⁾ 다만 신라의 북변을 언급한 점으로 보아 489년 전투도 481년·484년 전투와 같은 정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489년 전투에 백제군이 참전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전투지역이 구원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일 수도 있지만, 494년 살수지원 전투에서 다시 구원군을 보낸 것을 보면 백제 내부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주목되는 기사가 487년 紀生磐宿禰의 반란사건이다.⁵¹⁾ 紀生磐宿禰는 任那를 근거지로 하여 고구려와 통교하였고, 爾林에서 백제 장수가 살해 당하자 백제왕이 군사행동을 통해 임나를 압박한 사건이다. 백제와 고구려의 갈등 속에 임나가 고구려에 접근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기사에 등장하는 이림과 帶山城은 東道와 나루터를 고려하여 금강 일원, 세종시 부강지역으로 비정하기도 한다.⁵²⁾ 그렇다면 바로 487년의 반란사건은

49)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1년 동 10월.

50) 戈峴은 충북 단양에서 문경으로 넘어오는 국도 59번이 지나는 별재가 아닌가 한다. 별재는 달리 한자 표기를 확인할 수 없지만, 별재의 별을 伐로 보면 戈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고개를 사이에 두고 단양의 도락산성과 문경의 노고산성이 위치한다. 동로면 간송리의 노고산성은 둘레 665m의 테피식 구조로 신라가 축성한 후 후삼국기에 다시 이용하였다고 한다(중원문화재연구원, 『閔慶 老姑山城 學術調查 報告書』, 문경시, 2007, 93쪽).

51) 『日本書紀』顯宗 3년(487)是歲.

52) 양기석, 「5世紀 後半 韓半島 情勢와 大加耶」,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려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원, 2007, 53~57쪽. 종래 이림은 전북 임실·충남 예산, 대산성은 전북 태안·임실·진안 등으로 보았다. 최근 충북 음성이나 괴산 일대 등 충북지역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늘고 있다.

백제군의 구원을 가로막은 계기가 되었고, 한편으로 고구려군이 금강유역에 접근하려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의 두 전투와는 달리 489년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신라 호산성을 함락하였다는 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산성이 어디인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지만, 497년 牛山城을 고구려가 차지하였다는 기사와 함께 고구려와 신라 북쪽 경계를 가늠하는 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481~489년 고구려군의 공격에 따른 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481년 전투는 480년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이탈을 제지하려는 시도로서, 그리고 484년 모산성 전투는 문경 방면으로 신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489년 전투는 481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고구려군의 신라 북변을 통한 공략이 호산성 함락으로 일단락되는 정황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5세기 후반 고구려군은 소백산맥을 넘어 신라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타격을 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백제군의 구원 여하에 따라 전투의 승패가 결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3. 494년 살수지원 전투와 대치선의 변화

고구려는 481~489년 신라에 대한 세 차례의 공세를 통해 호산성 함락이란 결과로 일단 마무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전선은 보다 서쪽인 청주 근처에서 전개되고 있다. 494년 신라와 고구려군은 살수지원에서 전투를 벌인 것이다.

- 16년(494) 가을 7월 實竹 등이 고구려와 薩水之原에서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 犬牙城을 지키고 있었는데, 고구려 군사가 그곳을 포위하였다. 백제왕 牽大가 군사 3천 명을 보내 구원하니 포위를 풀었다.⁵³⁾

53)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6년 추 7월; 권26 백제본기4 東城王 16년

앞선 두 차례의 구원 기사가 백제본기에 실리지 않은 반면, 494년 전투 기사는 삼국의 공유 기사이며, 특히 백제 동성왕이 등장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먼저 전투가 벌어진 薩水之原(494)의 위치는 지금의 괴산 靑川⁵⁴⁾, 혹은 청천 일대가 너무 협소하다 하여 인근의 청원 미원 일대로⁵⁵⁾, 혹은 청천에서 충주 攄味로 이어지는 달천 주변 들판으로 보기도 한다.⁵⁶⁾ 살수지원을 청천 인근의 미원 일대나, 살수와 살미의 유사한 점을 좇아 달천 주변으로 본 것은 청천이 전투를 벌이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청천 가까이에 삼국시대의 성곽이 없다는 점도 약점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살수지원은 소백산맥의 서쪽, 충북 일대에서 찾아온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고려하고, 지명에 붙여 原으로 표현될 정도라면 협소한 지역보다는 광활한 평야를 낀 지역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보은과 문의 북쪽 지역에서 살수지원으로 비정할 수 있는 곳으로 청천보다는 청주에서 증평으로 이어지는 미호천 중상류 일대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며, 이 지역에서 확인되는 삼국시기의 유적 분포와도 부합한다.⁵⁷⁾

한편 최근 청주에 대한 지명 고증은 지리지 등의 연혁과는 달리, 서원

(494) 秋七月.

54)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淸州牧, 屬縣 靑川縣 在州東六十里 古薩買縣 一云 靑川 高麗改今名來屬 : 津田左右吉, 『好太王征服地域考』, 『朝鮮歷史地理』上, 1913; 아세아문화사, 1986, 220~221쪽; 金榮官, 『古代 淸州地域의 歷史的 動向』, 『白山學報』82, 백산학회, 2008, 47쪽.

55) 양기석,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문화사, 2001, 34쪽.

56) 김병남, 『百濟 熊津時代의 北方 領域』, 『白山學報』64, 백산학회, 2002, 148쪽. 기존의 견해대로 청주목 관할의 靑川縣의 옛 이름인 薩買와 『삼국사기』 지리지의 水城郡이 본래 고구려의 貫忽郡이라 한 기록에서 水川의 우리말이 買라 하였다. 또한 충주 攄味面の ‘살’과 ‘미’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여 ‘薩水之原’을 청천에서 살미로 이어지는 達川 주변으로 비정하였다.

57) 이 시기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유적은 청주 신봉동 고분군(사적 319호)이다. 고분군과 주변의 고고학적 연구성과는 다음 책을 참고할 수 있다. 양기석 외, 『백제 지방세력의 존재양태-청주 신봉동유적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충북대학교박물관,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발굴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012; 국립청주박물관·(재)중앙문화재연구원, 『신봉동, 백제의 전사를 만나다』, 2012.

소경 설치로 비로소 군현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⁵⁸⁾ 실제 淸州라는 읍호는 940년(태조 23) 군현명을 개편⁵⁹⁾한 후 비로소 보인다. 청주의 옛 지명은 (남)비성·(남)자곡·상당현 등이 보인다. 먼저 청주의 옛 지명은 『삼국사기』에 一云 臂城 子谷이라 하였고⁶⁰⁾, 『삼국사절요』(1476)에 남비성·남자곡이라 하였다.⁶¹⁾ 한편 『高麗史』(1451) 지리와 『신증동국여지승람』(1481·1530)에 처음 백제 上黨縣이라 하였다.⁶²⁾ 그런데 『고려사』 본기와 『고려사절요』에는 940년(태조 23) 군현명 개편 이전에는 靑州라 하였다. 靑州는 『삼국사기』 궁예전에도 보이며⁶³⁾, 견훤전에는 淸川이라 하여⁶⁴⁾, 940년 이전 청주의 지명은 靑州·淸川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薩水는 淸川縣을 달리 薩買라 한다는 『삼국사기』의 기록⁶⁵⁾에 몰입하여, 살수를 지금의 괴산군 청천면으로 고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따라서 필자는 薩水之原을 미호천과 보강천이 지나는 미호천 중상류의 청주 동쪽 청원군 내수읍과 북이면 일대로 보고 싶다.⁶⁶⁾ 그런 의미에서

58) 이러한 연유로 신라 서원소경이 백제 때 군현 단위의 편제가 없었거나, 아예 촌락 기반이 거의 없던 지역에 새롭게 건설한 도시라는 견해이다. 전덕재, 「西原小京의 設置와 行政體系에 대한 考察」, 『湖西史學』41, 호서사학회, 2005, 9~10쪽; 朱甫喆, 「韓國 古代村落史研究의 進展을 위하여-新羅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48, 한국고대사학회, 2007, 40쪽.

59) 『고려사』 권2 세가2, 太祖 23년(940) 春三月 改州府郡縣號.

60)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 백제 熊川州, …西原[一云 臂城 一云 子谷].

61) 『삼국사절요』 권9 唐顯慶 9年.

62) 『高麗史』 지리 楊廣道, 淸州牧 本百濟上黨縣 新羅神文王五年 初置西原小京… : 『신증동국여지승람』 청주목, 建置沿革 本百濟上黨縣 [一云 娘臂城 一云 娘子谷] 新羅神文王五年 初置西原小京…, 郡名 上黨 娘臂城 西原京 靑州 琅城 全節君.

63) 『삼국사기』 권50 열전10, 弓裔 …(光化)三季庚申(899) 又命太祖 伐廣州 忠州 唐城 靑州 [或云 靑川] 槐壤 等皆平之 以功授太祖阿湲之職. 이때의 靑州(靑川)를 괴산 청천면으로 보기도 하지만, 나열된 지명으로 보아 지금의 청주가 맞다.

64) 『삼국사기』 권50 열전10, 甄萱 …(天成)三年(928)正月 大祖答曰 …燕山郡畔 斬吉奐於軍前 馬利城邊 戮隨晤於霧下 拔任存之日 邢積等數百人捐軀 破靑川之時 直心等四五輩授首 桐數望旗而潰散 京山衛蠻以投降 康州則自南而來歸 羅府則自西移屬….

65)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1, 尙州 三年郡 淸川縣.

66) 살수지원을 청주로 본 견해는 다음과 같다.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上, 을유문화사, 1983, 60쪽; 鄭永鎭, 1989. 「高句麗의 錦江流域進出에 대한 小考」 『汕耘史學』3, 산운학술문화재단, 109쪽; 「京畿南部와 忠淸地域의 高句麗 城」 『高句麗研究』8(高句麗山城研究), 고구려연구회, 1999, 295~296쪽; 임기환, 「웅진시기 백제와 고구려 대외관계 기

494년 신라가 농성한 犬牙城의 경우에도 보은⁶⁷⁾이나 상주 또는 문경의 견훤산성으로 비정하는 것보다 낭비성⁶⁸⁾이나 謳羅山城⁶⁹⁾도 일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살수지원을 미호천 중상류로 비정할 경우 청주 일원의 산성 배치에서 살수지원 전투가 갖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보은과 청주 경계에 자리한 낭성산성은 북진하던 신라의 결절점으로 보이는데, 이곳으로부터 북쪽 방향으로 거의 일직선상에 가깝게 신라 산성이 위치한다. 신라 산성의 분포를 통해 볼 때 신라는 보은 삼년산성-미원(구라산성)-내수(낭비성)-증평(두타산성)-진천(도당산성) 노선에 축성을 통해 북진로를 개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494년 살수지원 전투의 위치를 비정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으며, 이 전투 이후 소백산맥 이서지역인 보은을 벗어나 적극적인 북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산성은 일종의 규칙성이 보인다. 우선 이들 산성 배치 간격이 대체로 10km 안팎으로 전망이 뛰어난 고지를 택하고 그 사이에

사의 재검토』 『百濟文化』37,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9쪽. 정영호의 경우 『삼국사기』 지리지의 고구려 故地를 바탕으로 음성 망이산성-청원 낭비성-청원 비종리 불상, 『삼국사기』의 554년 熊川城 전투, 그리고 부강지역의 연개소문 전설을 바탕으로 하여 금강유역 고구려군의 남하 사실을 추정하였고 구체적으로 부강의 개소문성을 고구려 성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이병도와 임기환은 별다른 설명 없이 살수지원을 청주로 비정하였다.

67) 양기석,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문화사, 2001, 34쪽.

68) (재)中原文化財硏究院, 2005. 『淸原 狼臂城 地表調査 報告書』, 청원군. 한편 『삼국사기』에 고구려와 신라가 전투를 벌이던 娘臂城(629)은 종래 청원군 북이면 土城里(李元根, 『百濟娘臂城考』, 『史學志』10, 단국대학교사학회, 1976)나 七重城(金崙禹, 『娘臂城과 娘子谷城考』, 『史學志』21, 단국대학교사학회, 1987)으로 비정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지금의 청주 일대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지금의 포천지역인 漢州 堅城郡은 고구려의 馬忽郡인데 고구려 漢山州 臂城郡의 다른 이름이 馬忽로 『삼국사기』 지리 漢州, 堅城郡 本高句麗馬忽郡 景德王改名 今抱州… : 고구려 漢山州, …臂城郡[一云 馬忽]…), 포천 半月山城에서 출토된 ‘馬忽’명 기와가 결정적 증거라 할 수 있다(徐榮一, 『高句麗娘臂城考』, 『史學志』26, 단국대사학회, 1995, 31~35쪽). 낭비성은 포천 일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최근의 연구성과에 대한 정리는 박중서의 글(『고구려 낭비성 위치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17, 한국국학진흥원, 2010) 참조할 수 있다. 박중서는 낭비성을 포천 반월산성으로 보았다.

69) 忠北大學校中原文化硏究所, 『淸原 謳羅山城』, 청원군, 2001. 이 산성은 남매축성설화와 함께 달리 九女城高麗城(『朝鮮實輿勝覽』, 1933), 궁예성(『한국지명총람』, 1970), 句麗城(『韓國의 城郭과 烽燧』상, 1989) 등으로 달리 불리고 있다.

산성을 배치한 형국이다. 또한 각 산성은 둘레와 형식이 일정하다.⁷⁰⁾ 산성은 모두 둘레 1km 이내의 크기로 산 정상부와 계곡의 높은 부분을 감싼 삼태기형, 사모봉형이다. 특히 이들 산성에서 주목되는 점은 산맥의 정상부나 평지에 솟은 산자락에 교차하여 축성하였다는 특징을 보여 마치 징검다리를 연상케 한다. 이와 같이 거의 같은 형식과 크기를 갖는 산성들은 바로 신라군의 북진과 연이은 축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살수지원 전투는 신라군이 미호천 상류지역에 진출한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제 신라군은 금강 본류를 우회하여 북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보다 후대의 사실이지만 보은 삼년산성에서 진천 도당산성에 이르는, 차령 이남의 신라 석축 산성이 거의 일직선상에 위치한 것은 축성 공력을 고려해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북진이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신라군이 미호천 일대까지 진출한 사건은 이후 백제가 동쪽으로부터 고구려의 직접적인 공격을 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 그것은 청주에 거점을 둔 백제군이 동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청주지역에 등장한 신라군은 양국의 우호관계가 지속하는 한 백제를 대신하여 고구려의 서진을 막아줄 순 있어도, 향후 백제의 동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아마도 이러한 정황이 동성왕으로 하여금 신라의 의도에 의구심을 가지고, 沙井城의 축성(498)과 炭峴設柵(501)으로 신라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무령왕대 대고구려 전선이 북방에 한정된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견아성에서 고구려군을 물리친 백제와 신라 양국은 이듬해 백제의 치양성을 공격한 고구려군에 맞서 호혜적인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70) 각 산성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낭성산성	구라산성	낭비성	두타산성	도당산성
둘레(m)	575	872	733	918	850
형식	사모봉형	사모봉형	사모봉형	사모봉형	사모봉형
해발고도(m)	346	484	255	598.3	201.6

495년 8월 고구려군이 雉壤城을 포위하자 백제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하였고, 신라왕이 장군 德智를 보내 구원하게 하니 고구려군이 물러나 돌아갔다.⁷¹⁾ 고구려군이 백제 치양성을 공략한 것은 한성 함락 이후 5세기 후반대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한 유일한 기록으로, 신라에 대한 공격을 거듭하던 고구려군이 갑자기 백제 쪽으로 방향을 바꾼 사례이다. 고구려의 대백제·신라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전투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치양성 등 웅진시기 지명에 대해 한성시기 기사를 분산 배치하였다는 견해가 있다.⁷²⁾ 이에 대해 동성왕~무령왕대 기사가 나름대로 일관성과 분량을 갖추었고⁷³⁾, 최근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의 고구려계 유적·유물도 편년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경기 남부의 성남·용인·화성 지역의 고구려계 고분은 몇 기에 불과하고 그 편년 설정조차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으로⁷⁴⁾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과연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영역지배했다는 적극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동성왕대 한산성 순행도 483년

71)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17년 秋八月 :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7년 秋八月.

72) 강중훈,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사료 계통과 그 성격」, 『韓國古代史研究』42, 한국고대사학회, 2006, 96~97쪽; 임기환, 「웅진시기 백제와 고구려 대외관계 기사의 재검토」, 『百濟文化』37,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2007, 16~17쪽; 「『삼국사기』 백제본기 대외관계 기사의 재구성 시론-지명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52, 한국고대사학회, 2008, 294쪽. 다만 강중훈의 글이 고려 초 이후 개편조의 가능성을 지적한 데 반해 임기환의 경우에는 백제 당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하여 사료의 분산배치에 대한 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백제와 고구려의 분쟁 지역을 한성시기의 일로 간주한다면 『일본서기』 欽明紀 12년조의 기사처럼 551년에야 비로소 한성지역을 다시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광개토태왕 남정 이전 369년(근초고왕 24), 394년(아신왕 3) 백제의 축성이 이루어진 水谷城을 백제군이 501년(무령왕 1) '고구려의' 수곡성을 공격한 것을 보면 분명히 같은 지명이라도 점유 주체가 바뀐 사례라 할 수 있다. 오히려 그 사이 소유 주체 변화에 따른 양국 국경선의 이동을 생각할 수 있다.

73) 李富五, 「수정론의 시각으로 재검정한 한국 상고사-강중훈의 『삼국사기 사료비판론』을 읽고-」, 『韓國古代史探求』10,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2, 219~233쪽.

74) 白種伍, 「南韓內 高句麗 古墳의 檢討」, 『高句麗渤海研究』35, 고구려발해학회, 2009, 243쪽.

(동성왕 5) 1회에 그쳤고, 고구려도 한성 일대에 대한 축성이나 적극적인 지배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보면 몽촌토성에 주둔했던 고구려군을 고려해도 한성 지역은 일종의 空閒지대가 아니었을까 한다.⁷⁵⁾

그렇다면 고구려와의 전쟁 기사 중 신라측 전거자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지만, 유독 이 시기 치양성 전투만 백제측 자료가 반영된 결과라는 견해⁷⁶⁾라 하여 전투 기사 자체를 부정하려는 경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 불신론⁷⁷⁾이나 분산배치론을 취하여 백제의 웅진 시기 삼국 관계를 이해하려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대외관계 기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동성왕~무령왕대의 한강유역 기사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에 따라⁷⁸⁾, 495년 기사의 치양성은 당시 삼국 전투의 정황을 이해하는 주요한 지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치양성은 황해 배천군⁷⁹⁾이나 원주 치악산 일대로 보고 있다.⁸⁰⁾ 당시 신라군의 활동 반경을 고려할 때 배천군은 가능성이 낮다 할 수 있으며, 원주의 경우 이미 충주지역까지 진출한 고구려군을 생각할 때 과연 원주지역에 백제 산성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결국 ‘백제의’ 치양성을 신라군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삼국 접점에 해당하는 곳을 비정할 수밖에 없다.⁸¹⁾

75) 박현숙은 한성 등 한강유역을 고구려와 백제 양국의 완충지대 내지는 접경지대로 보고 있다. 박현숙, 「5~6세기 삼국의 접경에 대한 역사지리적 접근」, 『韓國古代史研究』58, 한국고대사학회, 2010, 117~119쪽.

76) 임기환, 「『삼국사기』 백제본기 대외관계 기사의 재구성 시론-지명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52, 한국고대사학회, 2008, 291쪽.

77) 李道學,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王系의 검토」, 『韓國史研究』45, 한국사연구회, 1984.

78) 梁起錫, 「熊津時代 百濟 支配層 研究」, 『史學志』14, 단국대사학회; 박찬규, 「백제 웅진 초기 북경 문제」, 『史學志』24, 1991; 金榮官, 「百濟의 熊津遷都 背景과 漢城經營」, 『忠北史學』 11:12, 충북사학회, 2000; 沈光注, 「南韓地域의 高句麗 遺蹟」, 『高句麗研究』12, 2001; 김병남, 「백제 웅진시대의 북방 영역」, 『白山學報』64, 백산학회, 2002; 박현숙, 「5~6세기 삼국의 접경에 대한 역사지리적 접근」, 『한국고대사연구』58, 한국고대사학회, 2010. 웅진시기 백제의 한성 영유 문제에 대한 여러 논의는 김현숙, 「475~551년 한강유역 領有國 論議에 대한 검토」, 『鄉土서울』7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를 참고할 수 있다.

7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3 황해도 白川郡, 建置沿革 本高句麗刀臘縣[一云 雉嶽城]….

80)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290~291쪽.

한편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신라 장수 德智이다. 앞서 486년 삼년산성 중축, 494년 살수지원 전투, 그리고 496년 우산성 전투를 담당한 實竹과 달리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덕지는 463년 삼량성에 침입한 왜를 물리치고, 473년 급찬으로 右將軍에 임명, 476년 다시 장군으로 왜구를 무찌른 인물이다. 주로 경주 인근을 공략한 왜를 물리친 장군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그가 갑자기 495년 치양성 전투에 참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먼저 동성왕의 구원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군이 참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삼국사기』 기사에 한정하여 보면, 왜의 침입 기사가 478년부터 497년까지 1회(486)에 불과하여 중앙군의 활용폭이 넓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494년 살수지원 패전에 따라 실죽과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죽은 이듬해인 496년 우산성 전투에 다시 보이고 있고, 실죽의 활동이 486년 보은(삼년산성)~494년 청주(살수지원)에서 점차 동쪽, 남한강 상류(우산성)로 이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덕지는 실죽의 공백을 대신하기 위해 출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덕지의 출전을 통해 치양성 전투가 가지는 의미를 새삼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치양성 구원은 신라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치양성을 실죽이 활약한 우산성보다 서쪽 지역으로 비정한다면, 이곳에 신라 주력의 투입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사가 보이지 않아 속단할 수 없지만, 치양성 구원을 통해 신라군은 적어도 백제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 점은 5세기 후반 7차례의 전투에서 유독 신라가 구원군을 보낸 유일한 사례로서 치양성 전투가 가지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치양성 전투는 여전히 양국의 군사협력 체제가 유지되고 있던

81) 여기서는 구양성은 지명연혁 등 유사성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지금의 진천지역으로 보고자 한다. 진천은 고구려의 夡勿內郡[萬弩], 신라 黑壤郡[黃壤郡]으로 불렸는데 고구려계 耳環(광혜원면 회죽리)과 토기(대모산성)가 발견되어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사의 누락을 고려해도, 이 전투에 유독 백제왕이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한 기사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고구려군의 신라 공략에 따라 백제군이 자동 개입하였던 상황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전 해의 살수지원 전투에서 동성왕이 구원한 것에 대한 호예적인 참전이라 할 수 있지만, 신라군의 참전은 절차화된 느낌이다. 또 동성왕은 전투가 종결된 후 사신을 파견하여 사례하고 있다. 이같은 정황은 한성 함락 이후 고구려군의 공략이 집중된 신라에 대해 백제가 적극적으로 구원하였던 것에 비해 점차 신라의 주도적인 역할이 확대되고 있던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듬해 연이은 고구려군의 신라 공격에 대해 백제가 구원군을 보내지 않고 있다. 496년 7월 고구려군이 신라의 牛山城을 공격하자 實竹이 泥河에서 깨뜨렸지만⁸²⁾, 이듬해 8월 고구려군의 재침에 결국 우산성을 상실하고 만다.⁸³⁾ 고구려는 두 해에 걸친 戰役을 통해 우산성을 차지한 것이다. 고구려가 우산성을 차지한 후 고구려-신라 양국 전투 기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⁸⁴⁾

우산성은 泥河 근처, 남한강 상류 지역⁸⁵⁾, 보다 범위를 좁혀 충주로 보기도 한다.⁸⁶⁾ 496년 고구려군이 신라의 우산성을 공격하였다고 하였

82)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8년(496) 秋七月 : 권19 고구려본기7, 문자명왕 5년 秋七月.

83)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文咨明王 6년(497) 秋八月 :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9년 八月.

84) 이후 양국의 전투가 보이지 않아 소위 和約이나 密約說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화약이나 밀약은 상호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5세기 후반의 전쟁은 모두 고구려의 도발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의 입장에서는 고구려의 공격이 없는 한 굳이 고구려를 자극할 일이 없었을 것이고 실제 소백산맥을 넘어선 신라가 6세기 중엽까지 고구려를 공격한 기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구려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85) 鄭雲龍, 「5~6世紀 新羅-高句麗 關係의 推移-遺蹟遺物の 解釋과 關聯하여-」, 『新羅의 對外關係史 研究』(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15),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54~55쪽.

86) 박성현, 「6세기 초 고구려-신라의 화약과 경계-「중원 고구려비」와 양국 경계의 재검토-」, 『역사와 현실』76, 한국역사연구회, 2010, 211~212쪽. 497년 우산성 전투 이후 고구려-신라 양국 간의 和約이 맺어지고 그 결과로 충주 고구려비를 세운 것이라 한다.

으니, 우산성은 496년 이전 신라가 차지한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산성을 충주로 볼 경우 496년 이전 신라가 충주지역을 차지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⁸⁷⁾

한편 이후 우산성에 대한 기록은 540년(성왕 18) 고구려의 우산성이 보인다.⁸⁸⁾ 두 기록의 우산성을 같은 곳으로 본다면 고구려가 497년 차지하여 적어도 540년까지 점유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540년 백제군이 과연 이곳까지 진격하여 고구려의 우산성을 공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525년(성왕 3) 백제와 신라 양국이 사신을 주고받는 등 우호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전제 하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540년 우산성은 정황상 다른 곳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산성의 위치는 496년 고구려군이 우산성을 공격하자 실죽이 泥河 가에서 물리쳤다는 기록과 이듬해 고구려가 우산성을 빼앗았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481년 전투에서 고구려군을 물리친 이하를 남한강 상류로 비정한 바 있으므로, 우산성은 泥河 근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6세기 중반까지 충주를 포함한 이 지역은 고구려의 영유가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어, 충주와 우산성을 포함한 지역은 줄곧 고구려가 영유하는 지역이 된 것이다. 곧 고구려와 신라는 소백산맥을 경계로 하여 국경선을 이루고 있었다는 견해⁸⁹⁾에 따르면 우산성의 위치도 소백산맥 북쪽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5세기 후반 동해안 방면을 제외한 소백산맥 이북에서 구체적인 신라의 흔적이 찾아지지 않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산성의 위치 비정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충주 동쪽으로부터 남한강 상류인 정선 서쪽 사이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⁹⁰⁾ 백제가 우산성 전투에 원군을 보내지 않은 것은 충주지역을 상실한

87) 그리고 박성현은 이때의 우산성을 구체적으로 충주 남산성이라 하였으나, 이곳에서 현재까지는 고구려계 유물이 출토되지 않고 있어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88)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聖王 18년(540) 秋九月 王命將軍燕會 攻高句麗牛山城 不克.

89) 강종훈, 「5세기 후반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선」,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2008, 119~120쪽.

90) 신라의 북진로의 하나인 죽령을 거쳐 단양-영춘-영월-정선에 이르는 루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영춘 일대에 남아 있는 온달 관련 설화를 주목할 수 있다. 비록 온달산

이후 교통로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6세기 들어 백제와 고구려의 전투가 북방에서 전개되고 더 이상 충주 인근의 전투 기사는 보이지 않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

한편 496년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우산성을 백제가 구원하지 않은 것은 접근할 수 없는 위치라는 점⁹¹⁾과 함께 다른 외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것은 496년(소지마립간 18) 봄 2월 가야국이 흰 평을 바친 기사를 주목할 수 있다.⁹²⁾ 이 기록은 가야와 신라가 처음 외교 관계를 갖게 되는 사건으로 주목할 수 있는데, 6세기 들어 대가야 등이 한때 친신라적 외교정책으로 전환한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⁹³⁾ 487년 백제의 대산성(帶山城) 전투⁹⁴⁾는 가라에 대한 견제와 남부 가야지역에 대한 진출을 예고였다.⁹⁵⁾ 『일본서기』 顯宗 3년 기사에서 보이듯 가야의 고구려 접근 시도와 496년 신라 접근은 백제로 하여금 대외정책의 위기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실제 백제는 앞서 살피본 바와 같이 沙井城의 축성(498)과 炭峴 設柵(501)을 통해 신라에 대비하고 있어 대외정책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백제의 입장에서 신라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이 오히려 신라 주도의 외교관계, 그리고 신라의 영역확장⁹⁶⁾이라는 결과만 가져왔다는 점을 비로소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⁹⁷⁾ 결국

성이란 명칭이 『輿地圖書』 이후의 인식이기에는 해도 이 지역에서 고구려군이 활동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산성을 영춘으로 비정하고 싶다.

91) 鄭載潤, 「熊津時代 百濟와 新羅의 關係에 대한 考察-羅濟同盟에 대한 비판적 검토」, 『湖西考古學』4-5, 호서고고학회, 77쪽. 정재운은 과현-호산성과 함께 백제의 구원이 힘든 곳을 고구려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한다. 이러한 고구려의 공격방향 설정이 백제와 신라 양국의 군사협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된 것이라 하였다(79쪽).

92)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昭知麻立干 18년(496) 春二月 加耶國送白雉尾長五尺.

93) 鄭雲龍, 「熊津時代 百濟와 新羅」, 『百濟文化』37,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2007, 43~44쪽.

94) 『日本書紀』 顯宗 3년(487) 是歲.

95) 白承忠, 「6세기 전반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百濟研究』31(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 p.60.

96) 鄭載潤, 「熊津時代 百濟와 新羅의 關係에 대한 考察-羅濟同盟에 대한 비판적 검토-」, 『湖西考古學』4-5, 호서고고학회, 2001, 73쪽.

97) 우산성 전투에 백제가 구원에 나서지 않은 것은 양국 동맹관계의 이상 징후로 양국 동맹

5세기 후반 신라 주도의 대고구려 전투는 고구려군의 남하를 일단 저지하였지만, 전투 결과에 따라 백제는 고구려군과의 접전지역을 신라가 차지하게 됨으로써 동쪽 경계가 크게 후퇴한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신라는 금강과 지류인 미호천 일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6세기 이후 삼국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5세기 후반 삼국의 전투 양상과 대치선에 대해 살펴보았다. 백제 한성 함락 이후 모두 7차례의 전투 속에 495년 치양성 전투를 제외하면 6차례에 걸쳐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였다. 또 6차례 중 3차례에 걸쳐 백제군이 신라를 구원하고 있어, 5세기 후반의 전쟁 양상은 고구려의 신라 공격이라는 전제 하에 이해할 수 있다.

고구려군의 공격 루트는 481년 고구려의 신라 공격과 이에 대한 백제의 구원을 통해 대략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종래 동해안 루트 등의 다원적인 공격방향을 제시해왔지만, 실제 충주를 경유한 루트가 유력한 것으로 보였다. 이 점은 고구려의 충주 점유와도 관련된 문제로서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연대에 대한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484년 삼국이 회전을 치른 모산성은 진천 대모산성이 아닌 문경 고모성으로 추정하였다. 충주에 거점을 둔 고구려군이 계립령을 통해 신라를 압박하였으나 백제의 지원으로 실패하면서 결국 충주지역에 머무르게 된 것이다. 이곳에 대한 공략이 실패한 후 고구려군은 489년 북변인 戈峴과 狐山城 공격을 통해 호산성 함락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결국 소백산맥에서 대치선을 이루며 6세기 전반까지 지속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 와해와 고구려·신라의 재결합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朴眞淑, 「百濟 東城王代 對外政策의 變化」, 『百濟研究』 32,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2000, 98~102쪽.

494년의 살수지원 전투는 신라군이 청주지역에 다다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백제의 영역은 청주를 경계로 이서지역에 한정되었다. 살수지원 전투는 신라가 향후 삼국 전쟁에 있어 기득권을 장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물론 각 전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단시간에 가까운 축성을 통해 북진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백제가 축성을 통해 신라에 대비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모두 7차례의 전투를 통해 5세기 말 삼국은 청주와 소백산맥을 연결하는 선에서 일시 대치하는 형국을 이루었다. 이것은 제라동맹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고구려군의 남하를 청주지역에서는 백제와 신라 동맹군이, 충주 방면에서는 신라가 전담하는 형국으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동맹관계가 유지되던 상황에서도 牛山城 전투에 백제가 구원군을 보내지 못했던 지리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후 백제와 신라 양국의 동맹관계가 틈을 보이는 시점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신라의 입장에서는 6세기 전반 백제와 고구려의 전투가 계속되는 시점에 더 이상의 전쟁을 벌이지 않고 내치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6세기 중엽에 이르러 다시 시작된 삼국 전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포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13.4.1, 심사수정일 : 2013.5.14, 게재확정일 : 2013.5.22)

주제어 : 제라동맹, 모산성, 살수지원, 니하, 충주 고구려비

<ABSTRACT>

Confrontation line and the Battle of the Three Kingdoms second half of the 5th century

Kang, Min-sik

Three Kingdoms bounda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5th century could be confirm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names of the towns and regions, and the aspects of the war among the three Kingdoms at the end of the 5th century. Goguryeo attacked Silla continuously, but Silla managed to expand its territory in the second half of the 5th century.

In 481, Goguryeo attacked Silla to save Baekje. Goguryeo army's axis of attack extended to Chungju, where Goguryeo built a monument. By this, the date of the monument could be traced.

The Mosan Fort Battle was fought in 484. The battle site is estimated to be at Gomosung(姑母城) in Mungyeong, not at the Daemosansung(大母山城) in Jincheon. Goguryeo army based in Chungju pressed Silla through Gyeripryeong pass(雞立嶺), but It failed because Baekje supported Silla. In 489, Goguryeo army again attacked northern boundary of Gwahyun(戈峴) and Hosansug(狐山城) and occupied Sobaeksanmaek(小白山脈) mountain range and hold the territory until the 6th century.

Silla advanced to Cheongju area after the victory at Salsu field(薩水之原) in 494. Baekje's boundary reached Cheongju and the west of it. Silla established a fortified base area from which it could immediately advance north in short period of time whenever it wanted to. Baekje fortified its fortresses to prepare against the possible threat by Silla.

Through seven battles at the end of the 5th century, the three kingdoms could form their boundaries at Chongju and along the Sobaek mountain range. At Cheongju area, Baekje and Silla formed allies forces, Silla hold

Chungju area exclusively. At Usansung(牛山城) battle, Baekje failed to send supporting troops due to the geographic difficulties. After this, there developed schism in the alliance of Silla and Baeje. In the mid-6th century, Silla could maintain the upper hand when the war of the three kingdoms resumed.

Key Words : Three Kingdoms war, the boundary, military cooperation,
Mosansung(母山城), Salsu field(薩水之原)